

평온 요양원

뉴저지 최고의 시설과 서비스로
주정부 평가 최고
Five Star 인증

한인 분들을 더욱 정성껏 모십니다

문의 및 상담
최진희 908-380-0619
622 South Laurel Ave. Hazlet NJ 07730

FAMILY VISION CENTER
Dr. Douglas M. Lee, Optometrist

- Eye Exams
- Eye Glasses
- Contact Lenses
- Eye Disease Treatment
- Refractive Surgery Consultant

1734 Lincoln Hwy.(RT.27)
Edison, NJ 08817
Tel. 732 / 393-1210
Fax 732 / 393-1140
www.DrDouglasLee.com

KIMS BIKE SHOP
732-846-3880
111 French St. New Brunswick NJ 08901

KWIK
퀵 모기지
주/택/용/자/전/문

다양한 용자 상품, 전화 상담 환영
Gabriel B Park (NMLS 1161224) Senior Loan Officer
Direct (908) 293-2215
gpark@kwikmtg.com / Licensed NJ NY PA CA FL CT MD VA TX

Century 21
SYLVIA GEIST AGENCY

Clara Torres
Sales Associate
NJAR Distinguished Sales Award
Cell. 908-330-8134
372 Highway 18, East Brunswick NJ 08816

프/린/스/턴/의/명/소
CHUCK'S
SPRING STREET CAFE

Buffalo Wings, Burgers & Dogs, BBQ Ribs & Combos
EAT IN / TAKE OUT
609-921-0027
ChucksSpringStreetCafe.com
"Delivery via Doordash or Grubhub" 16 Spring St. Princeton NJ 08542

은퇴플랜 및 재정설계 컨설팅
Advisors U Trust, LLC

401k, IRA, Annuity (개인연금)
생명보험, 메디케어 & 건강보험
자동차 주택 건물 비즈니스 보험

박가브리엘 (732) 865-1597
Licensed in NJ & NY
advisorustrust@gmail.com

UnitedHealthcare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귀하가 선택하실 수 있는
메디케어 혜택들을 알아보십시오.

한국어 무료 전화
1-877-718-3682 (TTY 711)
월요일 - 금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30분

즐거움 약국, 편안한 약국
LG 약국
Christine Eo | Pharm D, 약학박사
Tel. 732-354-3777
Fax. 732-354-4909 키북 ID : 888LG
244 Plainfield Ave, Edison, NJ 08817

감자탕, 순대, 도시락전문
732-248-1775

덕수궁
475 Old Post Rd. Edison.

B&B
Auto Repair

Seo Y. Park
175 Woodbridge Ave.
(Rt. 514)
Highland Park, NJ 08904
Tel (732) 985-9500
Fax (732) 985-7637

인병원
교통사고, 물리치료, 한방치료, 통증의학
T. 732-287-1990

Su-Ra Catering
(구) 수랏상

새로 이전한 수라 케이터링에서
더 깊이진 흥미를 느껴 보세요
732-287-6719
1609 Lincoln Hwy, Edison, NJ 08817

김치/하나
KOREAN-JAPANESE RESTAURANT
T 908.755.0777

김상우 한의원
Sang Woo Kim Acupuncture & Herbs

디스크/요통/손목/무릎/오십견
한방내과, 부인과, 소아과
알러지, 중풍 클리닉
732-248-1980 | 1939 RT.27 Edison NJ 08817

Central Funeral Home
중앙 장의사

Manager: Gina Chong, NJ Lic #4904
201-945-2009
809 Broad Avenue
Ridgefield, NJ 07657

SANSONE
AUTO MALL
90-100 RT.1 Avenel NJ 07001
201.852.3232
Manny Kim

HYUNDAI
TOYOTA KIA NISSAN Jeep CHRYSLER

모든 차종,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부활
제 3주일
2020년
4월 26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 - 7:00 PM
수 ~ 금 - 9:00 AM

주 일 (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 - 4:00 PM
일요일 (영어) - 8:00 AM
(영어) - 10:00 AM
(한국어) - 11:30 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732-356-1037
Email: office@edisonkcc.org
근무시간: 화~금 10am~3pm
http://www.edisonkcc.org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남웅 스테파노

본당부제
윤석로 이냐시오

평의회장
한상철 빈센시오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이번주 전례 안내>

제1독서 사도행전 2,14,22-33
화답송 시편 16(15),1-2 7과 5.7-8.9-10.11
복음 루카 24,13-35
복음 루카 24,13-35
<빵을 떼실 때에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복음환호송 루카 24,32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후렴 주님, 당신은 저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시나이다.
제2독서 베드로 1서 1,17-21

<주간 말씀 전례>	제 1독서/제2독서	복음 말씀
월요일 4/27/20	사도행전 6,8-15	요한 6,22-29
화요일 4/28/20	사도행전 7,51-8,17	요한 6,30-35
수요일 4/29/20	사도행전 8,14-8	요한 6,35-40
목요일 4/30/20	사도행전 8,26-40	요한 6,52-59
금요일 5/01/20	사도행전 9,1-20	요한 6,1-15
토요일 5/02/20	사도행전 9,31-42	요한 6,60-69
일요일 5/03/20	사도행전 2,14-36-41 베드로 1서 2,20-25	요한 10,1-10

미사지향

연미사 (봉헌자)

- 김정순 - 가족
- 김상기 (요셉) - 가족
- 조원봉 (빈첸시오) - 가족
- 장인석 (미카엘) - 가족
- 이화자 (마틸다) - 가족
- 김명자 (헬레나) - 가족
- 김교식 (야고보) - 가족
- 한정숙 (레지나) - 가족

생미사 (봉헌자)

- 오홍순(카타리나) - 오.사.모, 흥 비안네
- 전선희(다니엘라), 전선임(아네스) - 가족
- 김진철(요한) - 김 율리아, 스테파노 가족
- 박순례(세실리아) - 가족
- 김희석(다니엘) - 메타천구역

교무금 납부 안내

박재영(3-4)	이상화(4)	맹완식(1-4)
김정화(1-4)	한광동(5-12)	이창우(4)
합계: \$1,790		

감사 헌금 납부 안내

이창우(\$100)	박재영(\$100)	
합계: \$200		

주일 헌금 납부 안내

합계: \$100		

• 주일헌금, 대축일 감사헌금, 2차 헌금, 교무금, 감사헌금 - Payable to OLM

2020 Bishop's Annual Appeal

- 교구청으로부터 받으신 Bishop's Annual Appeal 봉투를 직접 교구청으로 보내시거나 사무실로 전달하시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헌금액은 지속적 복음화와 선교사업, 신학생, 청소년 양성 및 가난하고 소외된 취약계층을 돕는데 사용되며 2020년 본당 할당금액은 \$35,000입니다.
- 3월5일까지 약정된 금액은 \$9,085 (26%) 입니다

공지 사항

코로나 19 바이러스 관련 하여 모든 회의 및 모임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필요한 사안에 대한 결정은 단체장을 통해 전달해드립니다.

매일미사 책 배부 안내
 -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매일미사 책 배부는 잠시 중단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사제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번호: 732-356-1037

견진성사 신청자 모집
 - 세례를 받으신 분들 중 견진성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또는 이서형(요안나) 선교분과장님께 연락바랍니다.

2020-21 예비자 모집
 - 예비자 교리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 또는 이서형(요안나) 선교분과장님께 연락바랍니다.

2020년 한국성지순례단 모집
 - 일시: 2020년 10월 20일 ~ 10월 30일(10박11일)
 - 지도사제: 이남웅(스테파노) 신부님
 - 순례지: 제주, 부산, 전주, 대전, 청주, 수원, 서울대교구 성지 임진각 파티마 평화의 성당 남북통일 기원미사 후 서울귀환
 - 참가신청비: \$3,000
 - 신청방법: 여권카피와 예약금 \$1,000 (선착순 25명)
 - 신청 및 문의: 사무실 / 마리아 두어 212-594-7773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정영철 프란치스코, 최규학 프란치스코, 하건철 안토니오, 이정우 바오로, 김진철 요한, 오옥순 수산나, 정영옥 수산나, 최경삼 안나, 김경희 수산나, 오홍순 카타리나

KCB 가톨릭방송 코로나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백만단 목주기도운동
 - 4월 한달동안 코로나바이러스 종식을 위한 백만단 목주기도 운동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전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든생활이 마비되었습니다. 그로인해 많은 비지니스, 가족들, 교회 여러 공동체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말로 우리가 목주를 높이 들고 하느님과 성모님께 기도하고 중재청원기도를 해야 할 때입니다.
 - 목주기도는 4개의 신비(영광, 고통, 환희, 빛의 신비)로 이루어지며 각 신비는 10개의 성모송과 앞뒤로 주님의 기도와 영광송으로 맺는 5개의 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신비를 코로나종식을 위한 청원기도지향으로 바치면 5단이 됩니다.
 - 레지오 마리에, 울뜨레야, 성령기도회, 성가대, 연령회, 전례봉사자 그 외 신심단체들 그리고 개인으로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가능합니다.
 - 기도를 마치면 이름과 소속 본당, 단체와 함께 단수를 카톡아이디 KCBNY 로 보내주시면 집계하여 합산하겠습니다. 익명 참여도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718-888-9130
 KCBNYORG@gmail.com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24,13-35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나?”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으로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고 천사들이 알려 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이!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데에 마음이 어찌 이리 굳느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때가 되어 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열한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신앙 칼럼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참행복’에 대한 말씀 - 첫 번째 행복 -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마태오 복음이 말하고 있는 여덟 개의 ‘참행복’ 중 첫 번째 행복에 대해 살펴 봅시다. 예수님은 역설적인 선포로, 행복을 위한 당신의 길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마태 5,3) 여기서 놀라운 길이자 ‘참행복’의 대상은 바로 가난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 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무슨 뜻인가? 만약 마태오 복음저자가 이 단어만 사용했다면, 그 의미는 단순히 경제적인 의미에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곧,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거나 혹은 없는 것,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태오 복음서는 “영 곧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영”은 하느님께서 아담에게 불어넣으신 “생명의 숨결”(창세 2,7 참조)입니다. 바로 우리의 가장 내적 차원, 영적인 차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인간답게 하는 가장 내적인 차원인 우리 존재의 깊은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영(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깊은 곳에서 자신이 가난한 사람이며 가난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뜻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속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주 인생에서 무엇 또는 누군가가 되어야 하고, 이름을 알려야 한다고들 이야기 합니다. 여기서 고독과 불행이 시작됩니다. 내가 “누군가” 되어야 하고 다른 이들과 경쟁해야 하고, 나 자신에 대한 강박관념에 싸여 살게 된다면 고독과 불행이 시작됩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나는 나의 나약함을 생각나게 하는 모든 것을 증오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나약함이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지 못하게, 명성을 얻거나 부자가 되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약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 각자는 내적으로 취약합니다. 하지만 내 한계를 거부하면 잘 지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한계점에 남아 있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요청하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존심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방해 합니다. 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신혼부부들이 결혼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을 때 저는 “마법의 단어 세가지가 있습니다. 허락, 감사, 사과입니다.”라고 이야기 합니다. 이 세 단어는 ‘영’의 가난에서 오는 것입니다. 선을 넘지 말고, 허락을 구하고, 작은 것이라도 해주면 감사하고, 실수하고 잘못하면 사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가난하다는 것은 은총의 기회”라고 말씀하시며, 또 ‘영’으로 가난할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을 가진 사람들은 재물과 안락을 누립니다. 이러한 왕국들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힘있고 강력한 통치자나 정부는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오늘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옛 사람들은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사실입니다. 장례행렬 뒤에 이삿짐 차가 따라가지 않습니다. ‘영(마음)’이 가난하고 참된 선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하늘나라를 다스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권능입니다. 그 권능은 형제애의 힘, 이웃사랑의 힘, 사랑의 힘, 겸손의 힘입니다.

복음 묵상 나눔

1.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루카 24,16)
2.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곁에 계신데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의 말 속에서 찾아봅시다. 특히 19절에서 21절까지를 주목해 봅시다.(성경 본문참조)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루카 24,30-31)
3.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게 되는 과정을 잘 살펴봅시다. 그들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그분을 알아본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 이것을 해주셨고 제자들은 이것에 집중하고 참여했기에 그분을 알아 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서 이것은 무엇일까요?